불자 세상보기

정치인, 100만 촛불 민심을 들어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대해로 흘러들어가는 거센 물결도 작은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 하나의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모이지 않는다면 큰 강물도 만들어지지 못한다. 한두 사람이 들고 있는 촛불은 그다지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 없지만 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든 촛불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거센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들어 토요일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정권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 모씨 일족이 중심이 된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대통령이 관련된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비화되어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참고인을 넘어서 피의자로 조사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주변인들의 국정 농단에 실망했고, 여기저기 정부예산 속에 숨겨놓은 비선실세 예산 수천억원을 확인하면서 분노했고, 이를 방치한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함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수십년 전 국가 정보기관에서 최모 목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지만 그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대를 이어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과의 권력거리를 악용한 집단의 국정농단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대통령들도 집권 4년차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 오고 퇴임 후에는 대통령의 자식이나 형제, 그리고 친인척들이 구속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와 같이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고, 비선실세가 노골적으로 국정에 관여하여 장차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법인을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남용하는 사례는 없었다.

부처님은 상인이든, 수행자든 관계없이 누구든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려면 지혜, 근면, 후원자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하신 바 있다.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부지런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보호자가 되어 대통령을 외호해 줄 수 있고, 대통령은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지도력을 갖추고 원만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불통대통령의 상징이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약 9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 응답함으로써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직도 "자발적으로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하야,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 등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으로 진퇴를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범법 행위로 인하여 신뢰에 금이 가고 국민 대다수에 의해 불신을 받는다면 국정의 원만한 운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은 대승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민심이 곧 천심' 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격언이다. 그리고 그 민심의 소재는 100만 명의 촛불집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국회에서 결의된 특검을 통해 범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대통령은 즉각 진퇴를 결정하리라 믿는다. 그 결정이 평화적 촛불 행진을 벌이는 민심과 괴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거센 물결이 되고,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폭류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자칼럼

액자값만 2천만원, 뭣이 중헌디?



노덕현
취재부기자

8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안보 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당시 새누리당 신임지도부와의 오찬을 초호화로 즐겼기 때문이었다. 당시 오찬 메뉴로는 900g에 1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을 비롯해 캐비어, 샥스핀, 바닷가재 등이 상 위에 올랐고 이런 오찬을 두고 '민심 너머 궁전의 식탁' 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초의 일이다. 조계종 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처의 2017년 예산안을 주제로 한 교계 주요언론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 공개된 조계종 2017년 예산안의 한 대목이 기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바로 '역대 총무원장 액자 제작비' 예산으로 잡힌 2000만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신도시 포교를 비롯한 종단 목적사업으로 인해 일반회계 예산이 대부분 감소했음을 조계종 측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목적사업으로 인한 종단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부처에서 많게는 20% 가량 예산이 감소했기에 신규로 편성된 2000만원의 액자 제작 예산은 기자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액자 제작에 2000만원이나 들어가냐"는 기자들 질문에 종단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총무원장 스님의 액자가 없어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액자 뿐만 아니라 행장 등을 함께 싣는 것이기에 비용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기분을 남겼고, 기자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어떻게 역대 총무원장 액자값이 2000만원이 나올 수 있을까? 조계종의 역대 총무원장은 34대까지 포함해 30명이다. 3명의 권한대행까지 포함한다면 액자는 37개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로 따지면 액자 하나당 60만원가량이니, '고급 액자' 로 한다면 이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역대 총무원장의 행장도 다룬다니 1명당 60만원이면 어찌보면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당장 총무원 앞 조계사 주차장에 가보자.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는 사무실이 없는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액자값에 해당하는 60만원이 없어 난방도 어려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신문사에는 이 60만원이 없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탈북불자들 · 독거어르신들의 사연도 들려온다.

왜 역대 총무원장 액자를 지금 제작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지만 이날 자리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펼치는 것을 밝히는 자리였다.

예산안 곳곳에는 긴축을 고심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종책 실무를 맡는 종무원들의 인건비는 동결됐고, 각 부처의 예산은 크고 작게 삭감됐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종단의 3대 사업 중 하나인 포교 예산이 전년 대비 4.6% 감소돼 대형 목적사업 진행과 별개로 포교사업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여기에 세입안 곳곳에서는 위기가 느껴졌다. 전체 세입은 3%가 증가했지만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특별분담금과 직영분담금 등 일부 대형 · 기도사찰 부담분이었다. 소규모 사찰을 포함한 일반 사찰들이 부담하는 중앙과 직할, 법인 등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바깥 사회의 경제는 얼어붙은지 오래고 이런 영향이 불교계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역대 대통령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돼있다. 가톨릭 명동성당에도 역대 교구장 사진을 전시한 아카이브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억하는 정치 · 종교지도자의 모습은 액자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다.

국민은 힘들다. 불자들도 힘들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34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불자들, 국민들과 함께 하는 집행부로 남아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社說

법인관리법 보완 · 개정 필요하다

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이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법과 행정 미비로 '지원없는 관리법' 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는 결계 · 포살에 대한 지원이다. 법인관리법에도 의무 조항으로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임직원, 관리인과 그 도제는 결계 · 포살을 하도록 돼 있다. 종단 소속 사찰은 주지 스님이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 소속 사찰은 개인이 직접 결계 · 포살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종단 등록을 독려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적 행정 편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우려했던 스님들의 사회활동 위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불교 관련 법인의 경우 스님과 재가자가 결합하거나, 외부와 타종단 법인에 조계종 스님이 임원을 맡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인관리법은 이 같은 다양성이 감안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법인 활동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만 만연해지고 있다.

이번에만 3번째 연기된 대각회 특별교구화도 법인관리법의 불안요소다. 올해 8월까지 이행키로한 5개 조항은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각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관리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던 법이다. 이 같이 민감한 종책은 법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같은 종도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일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인 소속 스님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법인관리법은 '옥상옥(屋上屋)' 에 지나지 않는다. 조속한 행정 보완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교계, 수능 마친 수험생에 관심을

11월 17일,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오로지 이 시간만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수험생 가족에게는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 싶다.

한국사회에서 대입 고시는 매우 결연한 진검승부와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의 시험에서 인생이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에 가서도 학점과 취업이라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입 고시는 분명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수능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들린다. 부산의 한 재수생은 수능 1교시 언어영역을 치르던 중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10초간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해당 수험생과 부모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이와 더불어 수능 후에 들리는 소식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1월~2014년 9월 초 · 중 · 고등학생 자살 학생 수는 630명이다. 이 중 성적비관이 원인인 경우는 75명으로, 2015년에도 14명이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 10여 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11월 15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과 교사 모두 "입시 경쟁에 내몰리다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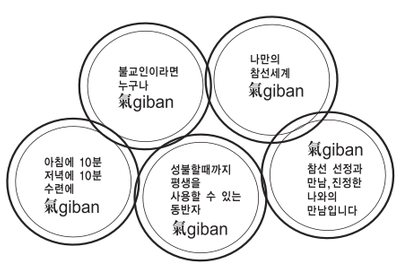
수능 후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다. 긴 여정을 마치고 온 수험생들에게 결과 따듯한 위로를 건네며, 나쁜 결과는 힘을 복돋을 수 있도록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